

**삼성전자,
세계최초 3G DVB-H폰 유럽 공급**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 - Handheld)방식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탈리아 이동통신 시장에 「3G(세대) DVB-H폰」을 본격 공급한다.

이로써 세계 최초의 DVB-H 서비스가 삼성 휴대폰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5월 중 텔레콤 이탈리아(TI)와 허치슨 이탈리아(H3G) 양사에 각각 3G WCDMA 방식 DVB-H폰 SGH-P920과 SGH-P910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최대의 통신 사업자인 '텔레콤 이탈리아'는 삼성전자 와이브로 기술을 도입

해 내년 상반기중 이탈리아에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최대의 3G 통신 사업자인 '허치슨 이탈리아'는 2003년 유럽 최초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세계최초 DVB-H폰 공급으로 올해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될 DVB-H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계기를 마련하며 세계 모바일 TV 기술을 이끌어가는 선두업체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LG전자, 북미 최대 생활가전 전시회 KBIS서 호평



LG전자가 정확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잠재 욕구까지 반영한 혁신제품으로 북미 최대 생활가전 전시회인 KBIS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McComick Place)에서 열린 북미 최대 생활가전 및 주방 용품 전시회 'KBIS(Kitchen & Bath Industry Show)에서 '인터랙티브 TV 냉장고', '아이스 디스펜서 장착 프렌치 디오스', 세계 최대 용량 '스팀 트롬'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이 제품과 함께 전기오븐레인지의 일종인 '레인지(Range)'를 올해 북미 시장에 첫 출시함으로써 풀키친(full kitchen)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대 가전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 TV 냉장고는, TV 냉장고에 추가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4인치 정보창을 적용한 일명 '똑똑한 냉장고'이다.

디스펜서 윗부분의 4인치 LCD 디스플레이에서는 RF(라디오 주파수)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기예보를 해주고, 99가지 요리 정보가 사전 저장돼 있으며, 소비자가 각종 기념일을 입력해 넣으면 해당날짜에 북극곰 아바타가 등장해 알려주는 기념일 알람 기능이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CJ홈쇼핑 가전 공동마케팅	2006.05.04
2	삼성 TV '보르도', 구주의 슈퍼 TV · 미주의 베스트	2006.05.04
3	삼성전자, 7인치 원칩 LCD 개발	2006.05.03
4	삼성전자 - 매르세데스-벤츠 명품 마케팅 펼쳐	2006.05.02
5	삼성전자, 하키로 유럽 달군다	2006.04.29
6	삼성전자 세계최초 3G(세대) DVB-H폰 유럽 공급	2006.04.28
7	삼성전자, 「차세대 기업용 IP 장비」시장 공략	2006.04.28
8	영국「모바일 초이스」삼성전자 카드폰 격찬	2006.04.25
9	삼성 애니콜 '스킨', 타킷마케팅 시동	2006.04.24
10	혁신제품으로 북미 가전시장 공략 강화	2006.04.21
11	중국 모니터시장 3대 가운데 1대는 삼성 모니터	2006.04.21
12	S-LCD, 月 생산 능력 9만매로 확대	2006.04.20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초콜릿폰, 유럽 휴대폰시장 공략	2006.05.04
2	LG전자 휘센 5월 가정의 달 대대적인 마케팅	2006.05.04
3	LG전자, 1분기 PDP패널 세계 판매 1위	2006.05.03
4	LG전자 뮤직폰, 미 포춘지서 강력추천	2006.05.02
5	LG전자, 세계 최초「DVB-H폰」출시	2006.04.29
6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6.04.28
7	LG전자, 호주 '최고기업' 선정	2006.04.25
8	LG전자 DVB-H폰, 이탈리아에서도 '브라보'	2006.04.25
9	LG 사랑의 병원 후원 협약	2006.04.24
10	LG전자, 북미 최대 생활가전 전시회 KBIS서 호평	2006.04.22
11	LG전자, 중국서 프리미엄 한류 볼 조성에 앞장	2006.04.20
12	LG전자, 1분기 매출 5조7,998억원 달성	2006.04.19

대우일렉, 42인치 PDP TV 100만원 대 특별 판매

대우일렉이 42인치 PDP TV를 100만원대에 선보이는 것을 필두로 대대적인 DTV 특별 판매에 나선다.

대우일렉은 5월 말까지 자사의 PDP, LCD TV 총 5,000대에 한해 최대 80만원까지 가격을 할인, "대한민국 4강기원 특별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우일렉은 42인치 PDP TV를 199만원에 선보임으로써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0만원의 벽을 허물게 되었으며, 50인치 PDP TV를 80만원 할인된 379만원에, 32인치 LCD TV는 50만원 할인된 139만원에 판매한다.

특히 42인치 PDP TV의 경우 대우일렉이 작년 5월 299만원의 PDP TV를 선보인지 약 1년만에 정확히 100만원이 하락, 본격적인 대중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370만원대의 50인치 PDP TV 역시 대화면으로의 PDP TV 시장 중심 이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일렉은 이번 특별 판매를 통해 월드컵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DTV시장에서 한발 앞선 가격경쟁력을 확보, PDP, LCD등 평판TV 판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들어 엘코스TV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DTV 부문 강화의 의지를 다져온 만큼 상반기가 향후 DTV 시장 전반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특별판매를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우일렉은 이번 특별 판매와 함께 월드컵 특수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LG필립스LCD, 세계 최대 LCD공장 준공



LG필립스LCD의 파주 7세대 LCD 생산공장 준공식이 노무현 대통령 내외, 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7일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LG필립스LCD의 P7 준공은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도전으로써 세계 1등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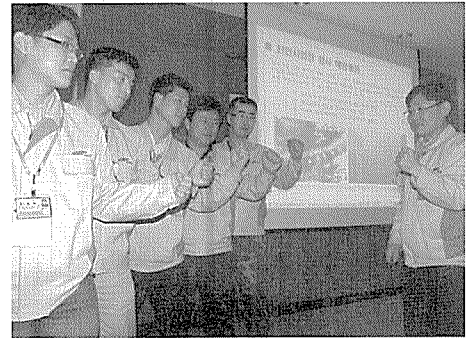
구본준 부회장은 "P7 공장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시설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조 3,000억원이 투자된 P7 공장은 가로 205m, 세로 213m로 한 층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 6개를 합한 것과 같다.

LG필립스LCD는 이날 준공식을 계기로 2분기까지 월 생산능력 4만 5,000장(유리 기판 투입 기준)을 확보하고 올해 말에는 9만장까지 생산능력을 확대, 디지털TV 보급확대로 급성장하는 대형 LCD TV 시장의 1등 자리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삼성SDI, 황사(黃砂)! 그들이 있어 전혀 두렵지 않다

황사는 삼성SDI가 만드는PDP TV 품질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40인치 이상 대형 PDP 양산라인 구축에 한창인 SDI 천안사업장에서는 황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10명으로 구성된 황사 예방 TF(Task Force)를 지난 3월 구성해 황사로 인한 임직원들의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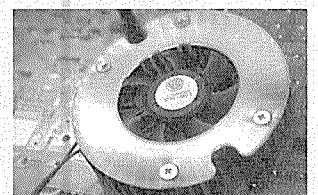
황사가 하늘을 뿌연게 뒤덮은 지난 4월 8일, 10인의 예방팀원들은 평소 훈련했던 자체 기준의 각 단계별(황사정보, 주의보, 경보) 시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해 자칫 대량불량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기상황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각 공정의 공기흐름을 평상시보다 빠르게 회전시켜 오염물질이 제품 또는 공정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치한 후 출입구를 하나 하나 통제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모든 공정의 에어샤워 시설을 평상시보다 2배나 향상시키고 기술자들이 공정의 클린도를 측정해 먼지 유입 이상유무를 확인했다.

LG이노텍, 그래픽카드 쿨러 시장 진출

LG이노텍이 고급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용 쿨러



개발에 성공, 그래픽카드 쿨러 시장에 진출한다.

LG이노텍이 이번에 독자 개발한 쿨러는 저널베어링 공법을 채택하여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저널베어링 공법이란 회전축을 동심원으로 둘러싸고 그 사이에 회전 매개체를 사용하여 회전축의 국부 마모를 최대한 줄이는 기술로, 팬 날개의 회전 각도를 기울어짐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LG이노텍은 기존 쿨러 제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팬 회전 오동작 및 높은 회전수 편차, 그리고 이에 따른 신뢰성 감소를 이번에 완벽히 해결했다.

특히 이 제품은 안정된 회전력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5,400RPM의 회전수를 가져가면서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팬블레이드(팬날개)를 설계, 저소음 제품을 선호하는 현 시장 트렌드에 적격이다. 이와 함께 최대풍압이 28Pa, 최대풍량은 3.2CFM에 이르고 있어 저소음 설계에 따른 방열 성능의 저하도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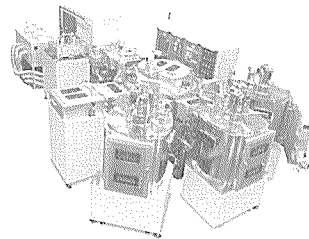
LG이노텍 관계자는 "이 제품의 크기는 'φ86×11.5mm'로 기존의 최신 GPU를 탑재한 그래픽카드용 쿨러들과 비교해도 컴팩트한 사이즈"라며, "이 정도 크기로 저소음 및 고품질을 구현한 것은 쿨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설계가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산전자BG,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진출

두산전자BG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 디스플레이사업부를 신설하고 그간 신사업팀에서 연구개발 수준으로 진행하던 OLED 재료와 LCD용 광학시트 등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두산전자BG는 동박적

층판(CCL)과 매스 램을 생산하는 기판소재 사업부, 연성동박 적층판(FCCL)을 생산하는 특수보드사업부, 접착제 등을 주로 생산하는 화학사업부, 디스플레이사업부의 4개 사업부를 두게 됐다.



두산전자BG는 그동안 인쇄회로기판(PCB) 원료인 CCL 중심의 사업을 펼쳐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디스플레이 소재와 FCCL 등 첨단 전자소재 사업을 보강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전자B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OLED용 정공주입층·정공전달층 물질 등이 패널 업체 생산라인에 양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적·녹·청 발광재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OLED 패널 뒷부분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흡습재 관련 설비 투자를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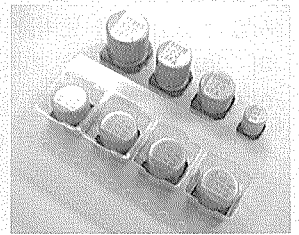
LCD 백라이트유닛의 핵심 소재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프리즘시트도 개발 마무리 단계로, 현재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각종 기능성 광학필름도 개발중이다.

삼화콘덴서, 고체 전해 콘덴서 양산

삼화콘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해콘덴서인 '하이캡(Hi-CAP)'을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고 4월 23일 밝혔다.

하이캡은 용량이 2,700마이크로페럿(μF)으로, 기존 제품보다 80%나 늘어났다. 지원 전압은 25V다. 이 제품은 또 일반적인 전해액 대신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고체 고

분자 전해질을 사용, 노이즈가 적고 온도 변화에도 성능이 유지되며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이에 따라 하이캡은 1개로 일반

전해콘덴서 3~4개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완성품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콘덴서 구입비용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삼화콘덴서는 월 800만개의 하이캡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었으며 투자를 지속, 월 1,500만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이 제품에 이어 35V 전압까지 지원하는 제품도 개발을 마쳤으며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화콘덴서는 "하이캡의 성능은 일본의 고용량 전해콘덴서를 능가한다"며 "일본 수요와 케미콘이 장악하고 있는 고용량 전해콘덴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이미지퀘스트 새사명 '현대아이티'

현대이미지퀘스트가 회사명을 '현대아이티'로 바꾸고 '제2 창업'을 선언했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4월 28일 주주총회에 사명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현대아이티'를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이미지를 벗고 IT와 접목된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아이티 관계자는 "아이티(IT)라는 사명은 지금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여서 신규

사업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이미지퀘스트라는 기존 회사명이 길고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홍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이티는 사명 변경과 함께 휴대가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분 44.4%를 보유한 관계사 하드트론테크놀러지와 함께 MP3플레이어, DMB수신 PMP, 내비게이터 등을 공동 개발중이다.

또 중소기업체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현대'라는 브랜드로 해외에 수출하는 등 해외영업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수페타시스, 알카텔에 PCB 공급

이수페타시스는 프랑스 알카텔에 인쇄회로기판(PCB)을 공급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이수페타시스가 공급하는 제품은 28층 이상의 통신장비용 PCB다. 공급 금액은 올해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수페타시스는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를 준비중이다. 이수페타시스는 작년 7월 알카텔의 품질 및 납기 심사를 통과한 후 8개월 만에 양산체제를 갖췄다.

이수페타시스는 "알카텔은 네트워크 장비 외에 이동통신 제품에서도 5조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빌드업 및 경연성

PCB 제품의 판매 개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성장 목표를 30% 이상 초과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EC, ELP 패키지(Package) 본격 양산 돌입



국내 최대 개별반도체 전문회사인 KEC는, 지난 3월 8일 전주에 있는 (주)KEC Semiconductor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 패키지인 ELP 제품의 초도품 출하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으로 양산 및 공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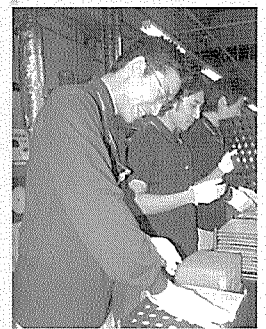
Leadless형 반도체는 전극 단자(Lead)를 밀면으로 형성하는 반도체 패키지로, 회로기판(PCB)에 실장될 때의 면적(실장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고, Lead형 패키지에 비해 칩(chip)과 외부 기판과의 거리가 짧아져 전기적 특성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휴대용 기기의 초소형화, 초슬림(slim)화 경쟁에 따라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C가 금번에 양산 들어간 ELP는 핸드폰, PDA 등 각종 휴대형 이동기기의 안테나 Module 의 고주파 소자, 소형 MIC용 FET 소자 등에 적용되며, KEC는 금번 ELP의 양산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Leadless형 제품을 확대해 나가, 향후 휴대 이동기기용

개별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기,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 기증

삼성전기는 제 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원지역 저소득층 장애인 11명에게 전동 휠체어를 기증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기증하는 대상은 수원지역의 '차상위계층'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가구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113만6천원의 100~120%에 해당) 기준을 벗어나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말한다.

삼성전기 강호문 사장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인 뇌병변, 지체장애 등을 겪으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미달되어 정부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 전동휠체어를 우선 기증하게 됐다"며 "연내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9명에게 전동 휠체어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체 장애 2급으로 멀리 이동해야 할 때는 휠체어를 대여해 온 임선숙씨(47세, 수원시 신동동)는 "남편이 고물(폐품)을 수집, 판매해 생활을 해 왔는데 최근 건강이 나빠져 힘들어 했다"며 "전동휠체어를 타고 남편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